채정은 작사가, 임재범 과 1997년 첫 작업…25년간 호흡

채정은 작가, 임재범 7집 수록곡 11곡 중 10곡 작사
오는 16일 '세븐 콤마' 1막 '집을 나서며…' 발매 예정

"상처 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임재범 '비상' 중)

노랫말이 시(詩)로 비상하는 순간이 있다. 본래 시의 고향이 노래이기는 하지만, 가수와 작사가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이 통할 때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빚어진다.

가수 임재범의 정규 2집 '디자이어 투 플라이(Desire To Fly)'(1997)에 실린 '비상'이 좋은 보기다. 임재범은 1991년 솔로 1집을 발매한 뒤 내적 갈등으로 오랜 공백기를 보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용기를 불어넣어준 곡이 '비상'이었다. 임재범과 채정은 작사가의 첫 협업곡이기도 했다. 그렇게 임재범과 채 작사가는 25년 동안 콤비가 됐다. '너를 위해' '고해' 등의 노랫말이 채 작사가의 작품이다.

임재범은 지난달 정규 7집 '세븐 콤마(SEVEN,)' 프롤로그 곡 '위로' 청음회에서 채 작사가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비상'도 그렇고 제 마음을 잘 읽어주시는 분"이라며 믿음을 표했다.

7년 만의 가요계 컴백곡인 '위로' 역시 채 작사가가 노랫말을 붙였다. 솔과 록을 결합한, 말 그대로 임재범 표 발라드다.

임재범은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이라는 가사가 크게 와닿았다고 했다. "통화하는 친구도, 만나는 사람도 없어 가끔 새벽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채 작사가가 자신의 그런 마음을 알아줬다고 했다. 임재범과 채 작사가는 이 곡 작업을 위해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임재범의 이번 7집은 정규 앨범으로 따지면, 6집(2012) 이후 10년 만이다. 임재범의 그간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기 위해 채 작사가가 앨범 수록곡 11곡 중 한곡을 제외한 10곡을 작사했다. 한곡의 작사도 여러 작사가가 함께 하는 요즘 흐름과 다르다. 그 만큼 앨범 전체가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범 7집의 모든 수록곡이 베일을 벗긴 전, 채 작사가와 서면 인터뷰했다. '제11회 서울가요대상'(2000)에서 작사가상을 받은 그녀는 서정적인 노랫말로 지난한 삶에 시적인 순간을 발굴해낸다. 좀처럼 인터뷰에 나서지 않는 그녀지만 "임재범 씨에게 뭐라도 힘이 되고 싶다"며 신중하게 응했다.

임재범은 오는 16일 '세븐 콤마' 1막 '집을 나서며…'를 발매한다. 채 작사가의 노랫말도 그렇게 하나 하나 노트 밖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채 작사가와 나눈 일문일답.

-우선 '위로'에 대한 평이 너무 좋아요. 재범 씨 보컬과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에 대한 좋은 평이 많습니다. 반응 중에서 혹시 인상적이었던 게 있나요?

"혼자 방에서 생을 마감하겠다 결심하신 분이 우연히 듣게 된 '위로'를 밤새 반복해 들으시고, 자신을 공감해주는 가사에 울다 그 마음을 거두셨다는 글에 제가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가사보단 공감의 말을 잘 전달하신 임재범 씨 목소리의 힘이겠지요."

-이 곡의 가사는 어떤 영감을 받아쓰신 걸까요?

"임재범 씨와 저의 작업 형태는 작곡가가 보낸 가이드를 각자 듣고, 임재범씨가 감정 디자인을 한후 다시 불러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 감정을 제가 읽어 가사로 만들고, 제 가사와 임재범씨의 감성이 대사화돼 녹음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처음 작곡가 분이 보내신 데모곡은, 빈틈 하나없이 꽉 들어찬 악기와 멜로디에, 여러 기교로 표현한 가창이 있는 굉장히 화려한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재범 씨가 불러 보내신 가이드는 작곡가 데모와 전혀 다른, 모든 화려함을 덜어낸 담백하고 맑게 힘을 뺀, 아주 따뜻한 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위로'의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힘든 이에게 미사어구 가득한 말들은 아무런 위로의 힘도 없고 오히려 상처를 주죠. 그래서 대놓고 '위로'라고 말하는 노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고민이 깊었는데, 그러다 생각해 낸 건, 나보다 더 절망의 끝을 본 누군가가, 울고 있는 내 옆에서 다 울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주는 그림이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어도 '너 힘든거 알아' 라는 말을, 힘든 인생을 경험한 임재범 씨 목소리로 공감해 준다면 상처를 치유받진 못해도 외로움은 잠시 덜어줄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했죠. 불꺼진 방에서 혼자 울다 이노래를 듣는 4분여 동안 만이라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따뜻함이 전달돼 덜 외로우시길 진심 바라면서요. 그건 임재범씨가 팬들에게 드리는 안부인사 같았으면 했어요."

-재범 씨가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을 가장 좋아하는 노랫말로 꼽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걸까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이긴 하나 이곡에 '위로'란 주제를 넣은 제일 큰 이유는, 임재범 씨 같은 고단한 삶의 경험자가 말하는 위로의 말이여야 가사로서의 힘이 있을 거란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감하기 위해 2절에서는 '나도 너처럼 그랬었다'는 본인 얘기를 해야했죠. 사실은 '가슴속 불덩이가 자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이 한줄을 말하려고 나머지 가사를 쓴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부르시며 임재범 씨 속의 슬픔도 토해내고 작은 위로도 받으시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이 있었죠. 임재범 씨가 제 응원을 들으셨나 봅니다."

-임재범 씨 7집에 실리는 11곡 중 10곡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요즘 같이 1곡도 여러 작사가가 쪼개서 참여하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인데요. '위로'를 포함해 10곡이 유기적인 짜임새가 있다고 재범 씨 소속사가 전했는데 10곡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서사인가요? 아니면 각자의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재범 씨 7집에서 풍기는 공통적인 정서를 각각 대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은 여러 면에서 제게 특별한 작업입니다. 7년 만에 세상에 나오는 임재범 씨의 감정을 조금은 단계별로 나눠서 무대위로 자연스럽고 덜 부담스럽게 오르게 하는 작업을 하려 노력했어요. 세월에 숙성된 사람의 감정들은 한걸음 물러서 있기에 참 깊고 아름답죠. 그래서 10곡 안에 7년 세월과 함께 더 세밀하게 깊어진 임재범 씨 목소리에 맞는, 삶을 보는 다양한 각도의 촘촘한 시선과 이야기들을 담겠다는 주제로 앨범의 가사 디자인을 시작했고, 반 정도의 곡은 그려놓은 가사 주제에 어울리는 곡을 찾아 고르는, 특이한 형태의 음악 작업도 있었습니다. 이 앨범의 가사들은 질문 하신것처럼 서로 긴밀 하게 연결됐다고 정의하기 보단, 감정의 다양성을 한 앨범에 풀어 넣었고 그 안에 하나로 연결해 흐르고 있는 맥이 있습니다. 사실 첫 감정이 시작되는 곡은 '홈리스(Homeless)'라는 곡인데, 제가 정해논 주제에 어울리는 곡을 찾아내야 했어서 헤매던 중, 우아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드는 클래식 기반의 작곡팀 '뉴아더스'(이치훈·김동현)분들을 찾아 여러곡을 부탁 드렸죠. 제가 많이 고생하시게 했습니다. 이 곡이 7집 앨범 작업의 첫 시작이었고 전체 가사의 베이스가 되는 곡이라 이 가사의 분위기가 모든 곡에 깔려 흐르고 있는 느낌이죠. 임재범 씨의 첫 녹음 곡이기도 하고요. 1막 음원 공개에서 들어보실수 있습니다. 전곡을 앨범으로 들으실 때 '홈리스(Homeless)'를 제일 먼저 듣고 나머지 곡을 들으시면 전체 앨범의 가사 디자인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작사가와 가수의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관계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사이일까요?

"작사가와 가수의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 작사라는 건 작곡가의 곡과 가수의 목소리를 붙여주는 접착제의 역할이 있다 생각합니다. 무형의 음과 목소리를 직설적 표현법인 언어로 바꿔 놓아야하니까요. 그 대사를 말할 사람은 가수이니, 말할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언어 표현을 찾아, 가수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왜곡되지 않고 투명하게 전달해 내도록, 분명한 색과 모양으로 색칠하고 포장해주는 일이 작사가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뉴시스

뒤늦은 상담예능…오은영 등에 업고 '오케이오케이' 흥할까

"KBS 순기능 극대화…작은영웅 통해 희망·용기 얻길"

KBS가 뒤늦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손을 잡았다.

오 박사는 요즘 방송가 대세로 떠오른 인물이다. 코로나19 시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미 채널A 예능물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새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등도 이끌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 순기능을 활용, 기존 상담 토크쇼와 차별화할 수 있을까.

오 박사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KBS 2TV 예능물 '오케이? 오케이!' 제작발표회에서 "기쁘면서 어깨가 무겁다. 난 전문 방송인이나 연예인은 아니"라며 "방송은 언제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KBS만큼은 방송의 순기능을 훨씬 더 많이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케이 오케이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숨어있는 영웅을 만나러 간다.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새벽부터 (사연자를) 만난다. 어제 녹화도 새벽 2시까지 했다. 23시간 깨어있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용기를 주는 많은 분들을 통해 가슴 뿌듯함을 매번 느낀다"고 귀띔했다.

오케이 오케이는 전국 방방곡곡 사연자를 찾아가 고민을 상담하는 토크쇼다. 오 박사가 직접 사연자를 만나 고민을 듣고 위로를 전한다. 오 박사는 "병원, 연구소에 찾아오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해왔지만, 모두가 위기라는 이 시기에 나의 힘을 한 방울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었다"며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방송을 많이 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이, 부모, 성인, 부부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패널들이 진심을 다해 경청하는 모습을 경험했지만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다. 시간, 경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털어놨다.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찾아가서 보고 마음을 나눌 것"이라며 "보는 분들도 공감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 받았으면 했다. 방송이 가진 순기능을 가장 극대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사실 스튜디오에서 찾아오는 분들과 만나면 편하지만, KBS와 함께하는 오케이 오케이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작은 영웅들을 찾아간다. 발걸음 발걸음 하나 하나는 그분들의 삶에 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그맨 양세형은 "오은영 선생님과 함께 해 영광"이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고민 상담하면서 같이 힐링하고 있다. 오은영 박사님은 단순히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서 끊임없이 말한다. 이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다"며 "출장 상담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상담사로 보이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공감 많이 해주는 어머니 같다. 촬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최면에 걸린 것처럼, 카메라가 쓱 지워지고 오 박사님과 상담하는 분들만 보인다. 희망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KBS 시청률 효자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최근 막을 내린 '갓파더'는 시청률 1%대, '주접이 풍년'은 2~3%대로 저조했다. 정미영 PD는 "지금까지 오은영 박사님이 해온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많다. 직접 고민 상담자를 찾아가고, 하나하나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조명한다. 오 박사님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넘어서서 이 시대 크루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 상담한다. 우리가 섭외한게 아니라 KBS가 캐스팅을 당한 것"이라며 "박사님이 '정말 착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고생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시청률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조현아 KBS 예능센터장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번주에 세 가지 프로그램 론칭한다. 월요일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화요일 오케이 오케이, 목요일 '홍김동전'을 방송한다. 상반기 동안 PD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자부할 수 있다. 1차 시사를 했는데 자신있다. 젊은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당길 것"이라며 "진정성있는 사연과 출연자 리액션이 훌륭하다. 장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일 오후 11시 첫 방송.

이종석, 피땀눈물 범벅된다…'빅마우스'

배우 이종석이 '빅마우스'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준다.

MBC 새 금토극 '빅마우스'(극본 김하람, 연출 오충환)는 승률 10%의 생계형 변호사가 우연히 맡게 된 살인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다. 하루아침에 희대의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Big Mouse)'가 돼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특권층의 민낯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종석은 '빅마우스' 박창호 역을 통해 어디에서도 보여준 적 없었던 색다른 변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는 "평범한 변호사가 천재사기꾼으로 의심받게 되는 아이러니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살아남기 위해 선악을 오가는 박창호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본을 처음 봤을 때는 평범하고 안쓰러움이 더 큰 인물"이라고 박창호 캐릭터의 첫인상에 대해 덧붙였다. 그는 "눈빛, 말투 등 미세한 부분에 디테일한 차이를 두고자 했다"며 "변호사 박창호와 천재사기꾼 박창호는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목표와 감정을 품고 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감정을 연기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연기 포인트를 전했다.

'빅마우스'는 '닥터 로이어' 후속으로 29일 오후 9시50분 방송된다.

이효리, 파격 '울프컷'에 홍현희 입틀막

가수 이효리가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로 등장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TV예능 '전지적 참견시점' 예고편에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깜짝 등장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개그맨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매니저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 만삭 화보를 촬영에 임했다. 제주 음식을 맛보고 직접 콘셉트를 잡아 촬영에 임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모여있던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홍현희가 "우리 친언니를 보면…"이라고 운을 떼고 매니저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힌트를 준다. 이후 이효리와 이상순이 등장해 걸어오고 이들은 환호성으로 반갑게 맞이한다.

결혼 후 제주에 터를 잡은 이효리가 홍현희 부부의 제주도 방문에 만나러 나온 것. 이효리는 앞서 티빙 오리지널 '서울체크인'을 통해 평소 자신의 팬이라던 홍현희와 친분을 쌓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효리는 늘 하고 있던 긴 생머리를 자르고 울프컷 스타일로 등장했다. 지금까지의 스타일과 전혀 다른 스타일링이 눈길을 끈다.